
제42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0.11.~10.1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19. 10. 11.	주간 시청률	0.014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2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라돈 침대, 국내 원전 사고 등으로 이제는 일상 이 된 원자력 문제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재식 위원장이 출연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해 풀어갔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의혹 이 일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시의성 있게 살피 적절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상황과 해양 방류 계획을 막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해 매우 유용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의식과 생활방사능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함께 살피 정보전달 측면에서 바람직했다.

【구성 및 내용】

국민의 신뢰와 국제협력으로 완성하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부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 원자력 안전 관리 현황, 생활 방사선 대책’ 등을 다루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 정책 및 생활원자력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10월 9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리는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소재로 시의성을 잘 살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시 물리적 제지 수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해수 감시 지점 확대 및 감시 주기 단축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 감시망의 기본 개념과 해수 감시망 확대 계획을 자막 화면으로 제시해서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IAEA에 국제적 공조와 대응 요청, 일본·중국·미국 등의 규제기관장과 양자회의 진행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사항】



‘최일구의 정말’, **녹화방송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은 시간이었다.

방송 당일(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논의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엄재식 위원장의 답변 내용 등 사전 자료조사에 부족함이 보였던 구성이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0. 12.	주간 시청률	0.011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여 마을 주민들의 고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과 수년 째 지속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마을의 현안을 민관이 협동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에 직접 나가 개선과정을 취재해서 전하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잘 드러났다.**

【구성 및 내용】

■ 태양광 시설 갈등...주민 참여·조례 개정으로 해결(신국진 기자)

2017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OECD 주요국가에 비해 한국은 아직 비중이 많이 부족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기로 하였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며 해당 계획에는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조명, 안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60%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정보전달 측면에서 유용했다.

■ 가뭄 극복 나선 주민들 민관 한마음으로 해결(이리나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이 전국 곳곳 농가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 충북 청주시 현도면 죽전리 마을의 경우 모내기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아 살수차, 소방차를 동원에 물 공급을 하는 등 가뭄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고 매년 농번기에 하천의 수량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 이장단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청주시·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가 협의에 나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다 가뭄 시에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용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산업협회의 재생에너지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원칙적으로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시즌3		
방송일자	2019. 10. 13.	주간 시청률	0.035

【총 평】

<희망 꿈틀 굼벵이아빠의 4전5기 도전기>는 귀농다큐로서 ‘전원일기’ 같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3년간 4차례 굼벵이 사육의 실패로 전량 폐기해 돈이 바닥나는 실의 속에서도 아내와 단란한 가정의 화목함으로 이를 극복하고 재기에 나서는 굼벵이 철학을 실천하는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굼벵이라는 아이템 선정이 독창적이었고, 굼벵이 농사 과정, 굼벵이 배설물 쓰임, 녹강균과 굼벵이, 사료회사의 도움, 비료 굼벵이 사업으로의 확장 등 낯설지만 새로운 굼벵이 사업의 현실을 잘 보여준 연출이었다.

【구성 및 내용】

시니어들의 귀농이 늘고 희망자가 늘어나는 시점에 굼벵이 사육 4전5기 도전기는 ‘희망 꿈틀’ 스토리와 함께 귀농 정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느낌과 오투기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귀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도 엿보이는 기획이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굼벵이 점검과 대추농사 점검, 부모님 댁과 놀이동산 방문, 사료업체와 발효가공업체 대표의 등장, 농산물 부스 참여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인공의 순박함과 착실함이 프로그램 구성에 잘 깃들었다. 또한 여동생의 교통 사망사고와 지인의 희귀병으로 인해 시작된 주인공의 굼벵이 농사 사연은 사람을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와 주인공의 농사 철학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인공의 거듭된 실패로 인한 아픈 체험과 극복하기까지의 치열한 노력이 내용의 중심이 되었어야 했는데, 현재의 상황과 두 부부와 가족의 일상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 구성으로 감도가 떨어졌고 지나치게 인터뷰에 의존해 느낌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사항】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이런 인생’을 소개하려는 건지, 아니면 먼저 귀농에 도전한 사람의 시행착오를 통해 귀농희망자의 성공적인 귀농에 대한 사전 노하우를 제공 하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점은 아쉽다.

귀농의 동기, 역경과 극복과정,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밀도 있게 그려지지 않으면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왜 4전5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곤충사육에 대한 전망 등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담았으면 관심 있는 귀농희망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차장에서 주인공의 차량번호 노출**에 신경을 써야 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19. 10. 13.	주간 시청률	0.046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파주연천에 이어 강화에서도 확진사례가 있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소개, 국내 확진 사례 및 돼지 살처분 등의 대책, 정부의 권역별 중점관리지역 관리 와 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현황과 확산 추세, 각 지자체와 관련부처의 강력한 방역 대응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살펴 시의성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돼지 이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사실까지 꼼꼼히 전달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정부, 양돈농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동안 아시아지역은 발생한 적 없는 청정지역이었는데 올해 8개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되었고 작년 중국의 경우 발병후 돼지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정부 조치 사항을 보니 소독 중심으로 권역내 이동을 금지하고 전염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단순히 돼지열병이 일어난 곳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실제 권역별 중점관리지역에서의 축산관계 차량등록증을 발급하는 현장 등도 보여주었다.

다만 방송분량에 비해 돼지열병 확진 지역 현장 방문, 돼지 살처분 및 농민의 트라우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개, 외국의 돼지열병 우수 차단 사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식당에서 돼지고기 섭취, 정부의 중점관리지역 선포 및 관리, 지역 농가의 선제적 예방,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경로, 축산관계 전용차량 및 전용스티커 발부 현장 등 돼지열병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 경향이 있었다.

【참고사항】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람에게에는 무해하다는 설명에서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구울 경우 괜찮다고 하였는데 고기를 삶거나 하는 경우 말고 돼지고기를 30분 이상 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돼지고기를 30분 이상 조리하면 등으로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프로그램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 시즌2		
방송일자	2019. 10. 13.	주간 시청률	0.072

【총 평】

이번에 방송된 ‘힘내라! 신중년! 중장년 일자리정책’은 시니어 재취업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2모작과 3모작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외국인의 체험을 통한 관점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해 정책알림이 역할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높인 기획성이 탁월**했다.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취업교육을 맡는 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셋강 생태공원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현장을 주인공들이 탐방하여 사례별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해외통신원을 통해 정년퇴직이 없는 나라 영국에서 고령층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커뮤니티와 스타트업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준 점도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되고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구성 및 내용】

■ 성북구청 신중년 인생3모작 정책

성북구청에서 시행중인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시작하고 있는 선배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 영국의 에이지UK 정책

실제로 정년제가 폐지된 영국의 재취업 정책 중 에이지UK 정책을 소개하고 커먼룸을 소개하면서 중장년층을 위한 여러 복지사례를 소개했다.

■ 서울시 50플러스 인턴십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실제 인턴십을 거쳐 활동 중인 선배들과 직접 야외로 나가 작업하는 모습까지 담아냈다.

【자막오류】



영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에이지UK'로 잘못 표기
→ '에이지UK'

※ 영국의 노인복지단체 '에이지 UK(Age UK)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19. 10. 15.	주간 시청률	0.009

【총 평】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자 하는 수소경제활성화, 그 중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수소경제와 수소 시범도시 모델, 활용에 있어서 수소차와 미래 전망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수소 시범도시의 수소생태계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특특 사이다경제편에서는 수소경제활성화, 그 중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수소경제와 수소 시범도시 모델, 활용에 있어서 수소차와 미래 전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수소경제 로드맵 구축의 해외 사례, 수소도시 개념과 추진 전략, 수소 시범도시 주요 모델, 수소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 방안, 수소차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수소 시범도시 주요 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산 및 이송하는 거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주거와 교통이며 특화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등 부가가치를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오는 10월 중 지자체 공모 및 12월 중 수소 시범도시 3곳 선정, 2022년까지 조성 완료 계획이다.

경제&이슈에서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 구매에 동의했지만, 이는 최종 타결이 아닌 휴전으로 장기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 발표했는데, 2021년까지 조달, 통관, 물류, 결제 전 과정 디지털화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멧돼지가 북으로부터 넘어와서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있지만 확산을 할 수 없다. 최근 확산세가 주춤한 것 같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사라진 싸이월드 개인자료 복구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해야 함에도 싸이월드가 예고 없이 접속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싸이월드 측 경영진 등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책특! 돈이특!에서는 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병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2018년에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감소하여 혜택 대상자를 확대했다.

【참고사항】

<경제 & 이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현황과 더불어 바이러스 감염 돼지의 살처분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9. 10. 16.	주간 시청률	0.133

【총 평】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톱뉴스로 배치했으며,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적절했다. 이와 더불어 <유용화의 오늘 의 눈>코너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을 왜 기억하고 민주항쟁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전달해 톱뉴스의 가치를 높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담은 소식을 톱뉴스에 이어 비중 있게 살피 시의성 있었다.

올해 유난히 많았던 태풍 현황을 조명하고 오차 예보를 줄이기 위한 기상청의 노력과 향후 가을태풍 발생 추이를 자세히 짚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대한뉴스 보도 아이템은 경제 분야 6건, 사회 분야 16건, 과학 관련 1건, 외교·안보 분야 3건으로 사회 분야 보도의 비중이 많았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외에도 검찰개혁, 금리인하 및 고용현황 등 경제상황 등 다양한 뉴스 및 정보를 전달해주었다.

-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
- 검찰에 대한 감찰 내실화 방안 지시,
-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중단없이 추진
- 문 대통령, 내일 경제장관회의 직접 주재
- 문 대통령, 스페인 국왕과 23일 정상회담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역대 최저
- 고용 개선 흐름 뚜렷, 대내외 불확실 상존
- 9월 취업자 34만 8천명 증가, 고용률 23년만 최고
- 한일 외교국장, 이 총리 방일 앞두고 회동
- 철원 민통선 내 멧돼지서 ASF 검출, 7마리째
- '대,중기 상생협' 출범, 소재 부품 상생모델 발굴
- 유용화의 오늘의 눈 - 부마 민주항쟁
- 오늘의 브리핑 - 부마 민주항쟁...국가 폭력가해자 책임 규명

【참고사항】

남성 캐스터가 날씨 예보를 진행해 신선했다. 그동안 날씨 예보는 여성 캐스터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바람직한 변화, 혹은 시도라고 본다.

프로그램	KTV 쟁점토론		
방송일자	2019. 10. 17.	주간 시청률	0.034

【총 평】

<쟁점토론> 제65회에서는 한일간 경제전쟁 100일을 결산하고, 오는 22일 일왕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아베 수상과의 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 전환점을 모색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주목도를 높였다. 이 총리의 방일 닳새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패널들도 통상전문가와 일본분야 정치외교 전문가들로 짜여져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분야도 한일관계 통상분야와 지소미아 종료결정 등 정치외교적인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특히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 평가와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우리정부도 책임이 있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SNS시청자의견이 소개되고 방송이 페이스북 등에 연결돼 쌍방향 소통 기획의도를 살렸다. 패널 4명의 모습을 화면 상단에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구성은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한일 경제전쟁 100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수상과의 회담 5일을 앞두고 방송된 기획성과 시의성이 돋보였고, 토론분야도 한일관계 통상분야와 지소미아 종료결정 등 정치외교적인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가 22일 일왕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어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없고 희망 섞인 기대만을 표출한 것은 아쉬웠다. 특히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 평가와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우리정부도 책임이 있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다만, 100일에 대한 평가는 도입부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건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쪽으로 토론을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참고사항】



지소미아 관련 토론을 시작할 때 **35초간** 전체화면 상단에 패널을 4분할 해서 보여주었는데, **시각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효과를 위한 장치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 시청자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